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김중경^{1*} Jung-Kyoung Kim¹ (jj2c@nate.com) ORCID: 0000-0002-6672-615X
¹김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imcheon University)

이중근² Jung-keun Lee² (gh1511@daum.net) ORCID: 0000-0003-0139-3697
²여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Yeosu University)

이재겸³ Jae-Kyeum Lee³ (jkleee6907@kakao.com) ORCID: 0000-0003-3434-4648
³김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imcheon University)

김기용⁴ Ki-Yong Kim⁴ (success4723@naver.com) ORCID: 0000-0002-8868-7323
⁴김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imcheon University)

김원중⁵ Won-Jong Kim⁵ (wtjtkfd@eulji.ac.kr) ORCID: 0000-0001-5586-1762
⁵울지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ABSTRACT

목적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준비에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방법 : 연구대상자는 G도에 소재한 일개대학 간호학과 학생 13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및 진로준비행동은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고,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은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연구 결과 셀프리더십은 취업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준비행동은 지원동기 및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관계에서 전공만족도는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19.4%였다.

결론 :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 저학년 때부터 전공에 대한 만족 및 셀프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위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help nursing students prepare for their career by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self-leadershi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Methods: Participants were 133 students from the University of Nursing located in city G. For data analysis, t-test and ANOVA were used for major satisfaction, self-leadershi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correlation was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Factors affect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ere analyzed using multiple regression.

Results: Self-leadership was found to have an effect on employ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found to have an effect on application motivation and employment. In correlation, major satisfact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leadershi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actor affect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was major satisfaction,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19.4%.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 program that can increase major satisfaction and self-leadership from the lower grades.

주 제 어 : 간호대학생,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

Key words : Nursing Student, Major Satisfaction, Self-Leadership,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Corresponding author: jj2c@nate.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COVID-19(Coronavirus disease 2019)와 새로운 신종 감염병의 등장으로 치료현장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간호사에게 전문가로서 역할수행을 위한 역량함량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1]. 간호현장에서 우수한 간호인력의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대학생 시절부터 간호전문직론에 대한 정립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간호학과 특성상 대다수의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바로 임상 간호현장으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학부 시절부터 진로에 대한 성찰과 직업적 소명의식의 형성이 매우 중요한데[2], 간호대학생의 경우 간호학과 지원 동기로 적성과 전공에 대한 성찰보다 취업을 고려하여 지원한 경우가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학생들은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지원한 학생들과 비교하였을 때 전공만족도가 낮아[3] 임상현장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간호학과는 전공과목의 학습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잦은 시험 및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의 병행으로 타 학과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굉장히 높아[4,5] 전공만족도 저하의 요인이 많아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셀프리더십 교육을 통해 증대할 수 있는데 [6],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목표 설정 및 자기통제를 통해 자기관리와 동기부여를 하는 과정을 말한다[7].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전공만족도, 자기주장, 자이존중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6,8], 타고난 재능을 지녀야 하는 것이 아닌 학습과정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발전 가능성이 있고, 학습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9]. 따라서 간호실무에서 셀프리더십 역량이 강조되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강화 전략 및 프로그램을 통해 실천적인 진로준비행동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진로결정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행동을 말한다[10]. 간호대학생의 특성 상 다양한 진로를 스스로 선택한다기보다는 병원 또는 기관의 설명회 및 채용공고에 의존하여 진로를 결정하고 있어[11] 수동적인 태도로 진로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 간호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나 진로준비에 대한 행동부족은 곧 간호사라는 직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13] 진로준비행동 강화 및 진로교육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은 진로준비행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준비에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및 진호준비행동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2021년 09월 30일에서 10월 3일까지 G도에 소재한 일개대학의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연구 참여를 동의한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연구자가 대상자들에게 직접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여부는 자발적이며 연구 도중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하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응답한 설문지는 총 133부이었고, 모두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표본 크기는 G*Power 3.1.9.2를 이용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예측변수 2개로 산출한 최소 표본수 89명을 충족하였다[14].

3. 연구 도구

1)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미국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평가조사(Program Evaluation Survey)를 이동재[15]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공하고 있는 전공학과 학문에 대한 일반적 관심에 따른 '일반만족' 6문항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만족' 6문항 '교과내용에 대한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 간의관계만족' 3문항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동재[1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4$ 이다.

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Manz[16]가 개발한 설문지를 기초로 김한성[17]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비판, 건설적 사고 등 6개의 하위

요인으로 각각 3문항씩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한성[1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91이다.

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18]이 개발한 도구로 16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4점 척도로 '매우그렇다' 4점에서 '전혀그렇지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봉환[1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s α =.8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s α =.93가 나왔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및 진로준비행동은 t-test와 ANOVA를 이용하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련성은 Pearson' 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및 진로준비행동 차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성별, 학년, 종교, 지원동기 및 취업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셀프리더십은 취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 및 직종으로 산업간호사 및 보건교사가 대학병원, 2차병원 및 공무원보다 셀프리더십 점수가 더 높았다($F=2.700, p=.024$). 진로준비행동은 지원동기와 취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지원동기는 권유보다 취업률, 가치, 적성 및 성적이 더 높았으며 ($F=2.819, p=.028$), 취업은 대학병원, 2차병원, 공무원 및 외국간호사보다 산업간호사 및 보건교사가 더 높았다($F=3.545, p=.005$) <표1>.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및 진로준비행동

		(n=133)						
변수	구분	n(%)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성별	남자	56(42.1)	4.08±.52	1.543	4.00±.617	1.078	2.75±.737	1.853
	여자	77(57.9)	3.91±.68	(.125)	3.88±.655	(.283)	2.55±.527	(.066)
학년	1학년	14(10.5)	4.04±.30		4.00±.346		2.50±.342	
	2학년	36(27.1)	4.07±.50	.117	4.01±.601	.394	2.59±.756	.729
	3학년	75(56.4)	3.96±.72	(.950)	3.89±.713	(.758)	2.89±.245	(.536)
	4학년	8(6.0)	3.92±.61		3.93±.639		2.63±.630	
종교	기독교	30(22.6)	4.15±.45		4.03±.59		2.78±.43	
	불교	9(6.8)	3.58±1.18	2.061	3.99±.78	1.763	2.28±.82	1.833
	천주교	5(3.8)	3.96±.60	(.109)	4.45±.40	(.157)	2.36±.38	(.144)
	무교	89(66.9)	3.98±.62		3.86±.64		2.64±.66	
지원동기	취업 ^a	50(37.6)	3.96±.60		3.97±.64		2.64±.55	
	가치 ^a	30(22.6)	4.22±.59		4.01±.75		2.87±.52	
	적성 ^a	26(19.5)	4.02±.59	2.250	3.91±.58	.542	2.61±.61	2.819
	성적 ^a	13(9.8)	3.77±.37	(.067)	3.74±.45	(.705)	2.55±.68	a>b
	권유 ^a	14(10.5)	3.70±.88		3.83±.59		2.21±.87	
취업	대학병원 ^a	99(74.4)	4.00±.62		3.98±.62		2.58±.61	
	2차병원 ^a	13(9.8)	4.00±.66		3.81±.76		2.76±.45	
	공무원 ^a	12(9.0)	3.94±.40	1.897	3.75±.63	2.700	2.81±.51	3.545
	산업간호사 ^b	2(1.5)	4.03±1.37	(.099)	4.08±1.29	a>b	3.40±.57	(.005)
	보건교사 ^b	3(2.3)	4.52±.45		4.68±.54		3.54±.79	a,c<b
	외국간호사 ^c	4(3.0)	3.16±.31		3.11±.06		1.94±.86	

a*, **b, ***c, ****d

2.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의 정도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의 평균은 3.98±.62이며, 셀프리더십의 평균은 3.93±.63이고, 진로준비행동의 평균은 2.63±.63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의 정도

변수	Mean±SD	가능점수
전공만족도	3.98±.62	1-5
셀프리더십	3.93±.63	1-5
진로준비행동	2.63±.63	1-4

3.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

전공만족도와 셀프리더십($r=-.735, p<.001$)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r=.452, p<.001$)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셀프리더십과는 진로준비행동($r=.306, p<.001$)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3>.

<표3>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

변수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
	$r(p)$	$r(p)$	$r(p)$
전공만족도	1		
셀프리더십	.735 ($<.001$)	1	
진로준비행동	.452 ($<.001$)	.306 ($<.001$)	1

4.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로 나타난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을 가지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909으로 2에 가깝고 0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분석결과 독립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460 ~ 0.460으로 1.0 이하의 값이었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2.172 ~ 2.172로 기준치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간호대학생의 진로 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전공만족도($\beta=-.496, p=.000$)였으며, 셀프리더십($\beta=-.059, p=.621$)은 유의하지 않았다.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19.4%였다<표 4>.

<표4>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p
진로준비행동	(상수)	.883		2.643	.009
	전공만족도	.496	.494	4.293	.000
	셀프리더십	-.059	-.057	-.495	.621
$R^2 = .445, \text{Adj.}R^2 = .194, F=16.888, p=.000$					

Beta and p-value estimated using linear regression model

Ⅲ.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98점으로 나타났으며,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 3.93점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은 4점 만점에 평균 3.63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한 대학의 간호대학생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때문에 지역을 확대하여 비교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변수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학년 때부터 전공만족과 셀프리더십을 높여주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1]	M. Fukada. (2018). Nursing competency: definition, structure and development. <i>Yonago Acta Medica</i> ; Vol. 61, No. 1, pp. 1-7.
[2]	오은진, 공정현(2017).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진로성숙태도,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 <i>인문사회21</i> . Vol. 8, No. 3m pp. 245-259.
[3]	이재경, 김원중(2021).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과 성격유형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i>한국산학기술학회지</i> ; Vol. 22, No. 6, pp. 100-107,
[4]	정미라, 정은(2018).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가 그릿(Grit)에 미치는 영향. <i>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i> ; Vol. 18, No. 6, pp. 414-423.
[5]	박현주, 장인순(2010). 간호학생의 보건진료소 실습경험. <i>지역사회간호학회지</i> ; Vol. 21, No. 2, pp. 188-199.
[6]	남문희, 이미련(2019).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아존중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i>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i> ; Vol. 9, No. 7, pp. 465-477.
[7]	서문경애(2005). 간호사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 개인성과간의 관계. <i>간호행정학회지</i> ; Vol.11, No.1, pp.45-48.
[8]	김두리, 임효남, 김진일(2020).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요인. <i>한국융합학회논문지</i> ; Vol.11, No. 3, pp. 369-377.
[9]	이미옥, 이미영, 김세영(2015).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학습인식. <i>한국간호교육학회지</i> ; Vol. 21, No. 3, pp. 417-425.
[10]	김봉환, 김계현(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i>한국심리학회지</i> ; Vol. 9, No. 1, pp. 311-333.
[11]	장태정, 문미경(2016).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i>간호행정학회지</i> ; Vol. 22, No. 4, pp. 344-352.
[12]	한승희(2018).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i>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i> ; Vol. 8, No. 7, pp. 379-389.
[13]	문지영(2019).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i>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i>
[14]	강현철, 연구필, 한상태(2015). 간호학 연구에서 효과크기의 사용에 대한 고찰. <i>대한간호학회지</i> ; Vol. 45, No. 5, pp. 641-649.
[15]	이동재(2004).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 성적체감, 성고정관념의 관계. <i>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i> . pp. 4-6.
[16]	C. C. Manz(1983). Improving performance through self leadership. <i>national productivity Review</i> ; Vol.2, No. 3, pp.288-297.
[17]	김한성(2003). 중학교 교사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도의 관계. <i>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i> .
[18]	김봉환, 김계현(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i>한국심리학회지</i> . Vol.9, No.1, pp.311-333.